

# 순천시, '청년축제' 청년이 직접 행사 기획한다

순천 청년의 날·청년주간 행사 21일 순천부 읍성서 축제 개최 공연·세대공감 OX퀴즈 등 다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만들 것"

순천시는 9월 세번째 토요일 '2024 순천 청년의 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2024 순천 청년의 날&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모를 통해 축제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된 13명으로 청년축제기획단을 구성해 기획단계부터 프로그램 아이디어 발굴 등 청년들의 생각을 축제에 반영해 청년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계획을 확정했다.



'2024 순천 청년의 날&청년주간' 포스터. 순천시 제공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순천부 읍성에서 열리는 '2024 순천 청년의

날' 행사는 '1845 청년의 시간, 청년이 주인공'을 주제로 유공자 표창 및 청년 세대별 비전선포, 세대공감 OX퀴즈, 청년태권도 공연, 청년가왕, DJ파티 등 청년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수상무대에서는 힐링라이브 청춘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체험·홍보·청년창업존에서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퍼스널컬러를 통한 면접이미지메이킹, 디지털캐리커처, 3D펜으로 작품만들기, 스마트양공 체험과 청년 일자리 취·창업 정보제공,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마켓으로 운영된다.

청년주간 행사로는 23일 오후 3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순천원도심할

성화사업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청년&상인과 간담회'가 순천청년정책협의체 주관으로 열린다. 26일 오후 2시에는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무인창업 노하우'라는 주제로 '나는 무인매장으로 퇴사합니다.' 저자 용선영 대표를 초청해 창업노하우를 전하는 창업특강이 진행된다. 24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후 7시에는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에게 인기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차이나는 클래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민 청년축제기획단 총감독은 "청년의 날 만큼은 청년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흙 자원의 보존과 새로운 확장' 구례군, 학술 행사 개최

구례군이 21일부터 22일까지 '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교육관에서 흙 자원의 보존과 새로운 확장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 행사는 20일부터 22일까지 구례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4 구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다.

군은 '농촌 사회를 살리는 흙 살리기, 흙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메시지를 더욱 심도 있게 전달하기 위해 5명의 전문가를 초빙해 탄소중립·흙·친환경 농업 전문가 그룹 정책토론, 일반인 대상 강좌, 토크콘서트 등을 마련했다.

21일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태근 흙살림 바이오 회장의 '흙없인 못 살아', 민승규 전남농진흥청장의 '구례농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아서' 강연이 진행된다.

22일에는 광교루 진도농부 대표의 '내 사주엔 흙이 없다', 유종민 흥익대학교 교수의 '기후변화·탄소중립, 시장경제를 말하다', 박찬우 푸드닥터 박사의 '건강을 살리는 밥상! 푸드테라피' 강연을 통해 청년 농업과 건강한 밥상, 변화하는 농촌사회와 시장경제 등을 이야기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학술 행사를 통해 흙이 우리의 생태계와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 여수시, 액화산소 추가 공급 추석 연휴 기간 고수온 대비

여수시는 추석 연휴 기간 고수온에 대비해 가두리양식장에 액화산소를 추가 공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바다 수온이 28℃ 이상 유지될 때 산소가 부족할 경우 양식어류의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여 결정된 조치이다.

이에 돌산읍, 남면, 화정면 등 해상가두리 양식장 10개소 33개 어가에 액화산소통 61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국비를 포함한 예산 1억 5600만원을 확보해 액화산소통 750대를 투입했다.

시 관계자는 "추석 이후에도 수온이 낮아지지 않을 경우 액화산소를 지속 공급하겠다"며 "양식 어가에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기발생기 가동, 그늘막 설치 등으로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여수시 고수온 피해는 98개 어가, 약 104억원에 달한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은 지난 14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벼멸구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 읍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 문병완 농협조합장이 피해 농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지원 및 당부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 '청년창업·일자리 창출 조례' 제정 구례군의회, 고용촉진 근거 마련



구례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12회 정례회에서 문승옥(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청년이 직접 참여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구례군 청년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청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구례군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문승옥 의원이 주관하는 청년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조례는 그 성과로 청년의 창업,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지원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승옥 의원은 "청년 대표들의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여 구례군 청년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조례에 반영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이 참여하고 이끄는 젊은 도시 구례의 이미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례=김상현 기자

## 보성군, '벼멸구와의 전쟁' 피해 확산 방지 총력

### 군수, 공직자 추석연휴 반납 피해 현장 다니며 예찰·방제

보성군은 지난 14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휴일도 반납하고 벼멸구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 읍면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예찰 결과 당시 피해 발생률은 40%로 방제가 필요한 면적은 23%다. 이에 김철우 군수 주재로 보성군의회 의장, 국회의원, 관내 농협장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연일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특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철우 군수와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과 군의원, 문병완 농협조합장 등 관내 조합장, 관련 부서장들은 휴일도 반납한 채 벼멸구 피해 현장을 찾아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애타는 농민들의 마음을 보듬고 있다.

또한, 이미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 효과가 높은 벼멸구 전용 약제를 벼대 아래까지 충분히 뿌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확기 전 예찰 강화 및 수시 방제 등 기술지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 농가 완전 방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발생한 벼멸구 확산과 관련해 보성군과 농협에서는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대와 방제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벼멸구는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수확기 전 최대한 방제해 주시고 군에서도 신속한 대책 및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 고흥군, 추석맞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고흥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명절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고흥 만남의 광장과 16개 읍·면에 현수막을 걸치고, 다중 이용 시설에는 배너와 홍보물을 비치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영상을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4일에는

고흥 만남의 광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으며, 고흥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소개하여 고흥에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통해 고흥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

린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부 금액은 개인 연간 500만원까지이며,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 영업점을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고흥군은 답례품으로 고흥 한우, 쌀, 유자, 제철 수산물 등 40여 종의 농수축산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는 고흥몰 이용권과 주택화재 안전 꾸러미, 분청사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 광양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적용

광양시 시내버스 요금이 10월 1일부터 200원 인상된다.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지난 7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도내 시내버스 운임 효율을 13.3% 인상 결정된 결과를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현금 기준 △일반인 1500원에서 1700원 △중·고등학생 1200원에서 1360원 △초·중·고등학생 750원에서 850원 인상되며 교통카드 기준 △일반인 1400원에서 1600원 △초·중·고등학생은 현행과 같이 100원 요금이 적용된다. 또한 현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광양시 경계 외 구간별 요금제를 폐지하고 전 시내버스 구간 요금을 단일화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한 이후 요금 인상을 보류해 왔지만 운수업계의 운송원가 상승에 비해 저조한 운송 수입으로 운수업계의 경영 위기로 이어져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광양=안영준 기자

